

조계종 총회 결의내용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범등)는 12일 재직 총회의원 78명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144회 임시총회를 열고 총무원장 유고시 법령 공포 권한을 총회장이 갖기로 종전(43조 1항)을 개정하는 한편 136회 총회 결의사항을 재결의해 이후 종단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또 총무원장선거법을 개정해 총무원장선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주요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무원장선거법: △22조 2항:결선투표의 경우 선거인단 재직 과반수가 투표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선투표 선거일만을 다시 정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98년 12월 7일 개정된 부칙4조는 삭제했다. 또 부칙 3조에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른 조치'를 신설해 △부칙 3조 1항:중앙선거위원회는 99. 10. 1 판결에 따른 총무원장의 부존재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총무원장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총무원장 선거는 제30대 총무원장 선거로 본다.

▲136회 임시총회 결의사항 소급 유효확인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해 12월 열린 136회 임시총회에서는 △총무원장선거법 개정 △회계위원회 신설 등 11개 안건을 결의했다.

▲초·재심 회계위원회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설:회계위원회 중앙선거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열린 136회 임시총회에서 신설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에서 총회의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결에 따라 당시 총회에서 선출한 회계위원과 중앙선거위원이 사표를 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재선출 형식을 밟았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심회계위원(7명):유정 선용 성용 종결 원형 지용 은성. △재심회계위원(6명):성태 해운 종진 도영 진해 대성. 대상스님은 이번 사법부 판결과 관계없이 사임한 흥교스님의 공직을 채우기 위해 선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1명):도현.

▲비상사태와 관련한 재정집행에 대한 결의 요청 등:총무원 재무부장 자승스님의 "현재의 비상사태가 시작된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집행된 모든 재정지출과 앞으로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의 모든 재정지출은 종단 예산에서 지출하고 비상사태 종료 후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총회에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선출:총무원이 추천한 원택스님을 찬성 62, 반대 4 표로 선출했다. 총무원은 이날 오전 총무원회의에서 종법에 따라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총무부장 원택스님을 추천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권한대행 선출에 앞서 총회는 '총무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총무원장이 선출되지 못하였거나 임기가 개시되지 못한 때는 중앙총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을 삽입한 총무원장법을 개정했다.

총회는 또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사들에 대한 특별법 제정 ▲호법부장 증지스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정성운 기자

화합-안정 바라는 포용책

조계종 '징계자 특별법' 제정 의미

멸빈자까지도 재심사대상 포함 30대 총무원장 선거 동참 가능 정화회의 "분열 노림수" 평가절하

해종행위 징계자 특별법의 제정은 이번 조계종사태 과정에서 나온 화합과 안정이라는 명분에 걸맞는 가장 획기적인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회에서 법 제정 과정에서 "종단을 혼란에 빠뜨린 스님들을 구제할 수 있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종단의 화합과 안정이라는 명분을 받아들였다. 15일 발표된 3인과 중앙총회 합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도 "종단 발전이 몇 년 더 더디고 하더라도 교단의 화합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반대의견을 다독이는 흔적이 보인다.

특별법에 따르면 징계대상사 대상은 지난 해 조계종사태로 인한

징계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종전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따르면 멸빈자까지도 재심사 대상이 된다. 대상자는 지난 조계종사태 징계자 96명, 일반 징계 30여명 등 1백40명에 이른다. 또 심사를 청구하면 이미 확정된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 결정할 수 없다. 이는 다음 달 15일 실시되는 총무원장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대폭 열어놓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초·재심회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원서 재심회계위원장)는 16일 심사청구를 공고하고 22일까지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교구 선거인단 선출기간(10.



조계종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중앙총회는 15일 해종행위 징계자 특별법 제정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31~11. 4) 전에 심사를 마쳐 교구 선거인단 선출 때부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법은 정화회의에서 선거무효 소송 또는 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경우를 대비한 대응입법의 성격도 있다. 징계로 인한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을 풀어주는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옹호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 종헌·종법에 따라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총무원측이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징계자 재심사를 통한 징계의 경감, 이를 통한 화합과 안정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정화회의는 15일 성명을 통해 분열책동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지난 조계종사태로 징계를 받은 이후 정화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스님들의 재심사 청구가 많은 경우 정화회의의 주장은 힘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종특별법에 의해 멸빈 또는 제적의 징계를 받은 스님들 가운데 이번 사태에 관련되지 않은 스님도 있고, 이들을 포함해 중징계는 아니어도 중징급 스님들도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 총무원장을 선출했다고 이번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대외적인 화합을 위한 대응책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1월4일까지 선거인단 선출...5~7일 후보등록

- 총무원장선거 어떻게 11. 5~14 선거 기간 11. 15 총무원장 선거 선거 기간중의 선거운동 규정 등 별도도 정하지 않았으나, 중앙선거위원회는 후보자등록부터 제출받은 신상명세, 정책 공약 개요 등을 후보등록 마감 후 최초로 발행되는 포교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금품 수수 및 물품 제공, 타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 행위 등 비승가적 행위, 각종 집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 임기(4년)는 전임 총무원장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결부된 인신 선거에 의한 총무원장의 임기는 중앙선거위원의 당선자 결정일로부터 시작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목어 제3의 영역 난투극을 벌였다. 10개월전처럼 한국불교의 체면이 또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언론이 질타하고 세계가 비웃고 시민들과 불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스님들을 향해 법문을 하고 있다. '상구보리·하와중생'이란 말이 무색하게 됐다. 차마 얼골을 다 내기도 민망하게 됐다. 그러나 <잡비유경>에 나오는 세 도인처럼 사범부가 내린 판결과 도심의 난투극을 보면서 스님들이 한소식 했으면 좋겠다. 이처럼 화를 복으로 바꾸면 종풍도 재물도 탐하지 않고, 세속에 빠지는 일도, 난투극도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계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최근 NGO 서울대회가 주목을 끌었던, 불교계에도 승단을 의회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중재하는 '제3의 영역'이 필요하다. "NGO는 정부가 잘하면 지지를 보내주고 도울도 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비판과 함께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 말에서 정부를 조계종단과 스님들로, 약속을 계율로 바꾸면 바로 한국불교의 '제3의 영역'이 해야 할 일이 된다. 범불교연대회의와 재가연대가 그 역할을 나섰지만 조직을 확대·체계화하여 조계종의 강력한 '제3의 영역'을 제도적으로 구축할지 바란다. 그러면 한국불교는 21세기 희망일 수 있겠다. 최정희 (본지 편집국장)

총무원 움직임 원로회의, 정화회의 해산 결의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12일 오전11시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종단 사태와 관련해 원로회의를 열고 재판부의 사죄와 정화회의 해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원로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불교 자주성과 조계종의 법통을 유린한 재판부의 각성과 사죄 촉구 △지난 해 11월 30일 거행된 승려대회는 조계종의 법통을 계승하는 유일한 승려대회를 다시한번 확인하며, 그 결의사항은 아직도 유효함을 선언 △정화회는 스스로의 잘못을 참회하고 즉각 해산 △사부대중은 현 집행부를 중심으로 종단 자주권과 법통 수호를 위해 총력 매진하라고 밝혔다.

○...총무원은 13일 열린 총무원회의에서 언론의 편파 보도에 대해 항의서한을 신문사와 방송사에 전달기로 했다. 총무원은 12일 열린 사부대중 결구대회보다 2주 앞서 우정국로 유류사태를 부각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뒤늦게 출동해 폭력사태가 유발됐으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기로 했다.

○...법통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탄성 원로회의 의장)는 12일 조계사 경내에서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자주권과 법통 수호를 위한 범불교도(사부대중) 결구대회"를 개최했다. 결구대회 후 총무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대회를 통해 대다수 스님과 신도들이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집단 정화회는 더 이상 종단내에서 아무런 입지도 없음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총무원은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불교 자주권과 법통 수호를 위한 교구 연합회법안' 창단식을 거행했다. 2백50여명으로 구성된 연합회법안(단장 증지 총무원 호법부장)은 이날 창단선언문에서 "비법의 무리를 종단 밖으로 물리쳐 종단이 안정되어 화합될 때까지 위법행위의 일념으로 물러설없이 정진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화회의 움직임 17일 통도사 대규모 규탄집회

○...법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도원스님은 9일 정화개혁회의 의장 도성, 원로의원 도일스님, 총무원장 직무대행 부원장 상덕스님과 정화개혁회의측 스님·신도 1백여명과 함께 조계사 입구에서 청사방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후 1시간만에 자진 해산했다.

○...정화개혁회의 총무원장 정영스님은 8일 법원(서울지법 민사 50부)에 '총무원장 임시대행자(통도사 방장 월하스님) 선임 신청'을 냈다.

○...정화개혁회의측 스님과 신도 80여명은 13일 낮 서울 조계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12일 오전 조계사 진입과정에서 총무원측이 도각 스님 등 3명을 강제로 끌고 7시간동안 잡아두며 고문했고 이중 1명은 아직도 행방불명상태"라고 주장했다. 정화개혁회는 "17일 통도사에서 3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규탄집회를 여는 한편 고문진상을 파악, 총무원측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화개혁회의측 권수 스님은 13일 집단폭행을 주도한 혐의(폭력)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과 총무원 전 총무부장 원택 스님 등 30여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14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등 1백여명을 폭력고사 및 행사, 납치 감금 및 특수폭행(고문), 강압에 의한 금품몰취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법 검찰청에 고소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봉인사 자광전 전문수련원 개원법회. 봉인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2리 304번지 천마산 서쪽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정확한 창건연대는 옛자료가 충분치 않아 알 수 없으나 봉인사 본원사지에 따르면 광해군11년(1619)에 중국으로부터 모셔온 석가 법인인 진신사리를 아들이었던 봉인사에 탑을 세워 봉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 영조 33년(1757)에 조계선종을 이은 부용 영관선사의 6세 손인 풍암 취우대사께서 사리탑을 중수 하였으며 조선의 3경로 손꼽히던 설두스님이 주석하시며 고승대역을 배출해 내셨다. 승유역불의 조선조 정척 속에서도 꾸준히 부처님의 교화사업이 끊이지 않았으며 구한말 일제 치하에서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일본으로 밀반출되고 절이 쇠락하였던 결국 폐사되었던 이 곳을 25년전 시절 인연이 닿아 화길로 대법사님의 원력으로 중창불사가 시작되어 큰 법당이 자리를 잡았으며 이어 10년전에는 일본으로부터 반출되었던 부처님의 사리와 탑을 다시 우리나라로 되돌아왔다. 그 탑은 현재 중앙박물관 뜰 앞에 복원 전시 되어 있고(보물 928호) 사리는 봉인사에 안치하였다. 봉인사 중창주인 화길로 대법사는 17세때 갑사로 출가하여 해방후에는 덕숭산 정혜사 민공스님 회상에서 오대산 월정사 함광스님 회상에서 정진하였고 동국 역경원 역경위원을 지내시면서 문헌수업을 도와 육조단장, 수능법회, 지장경 등을 번역한 뛰어난 학승이셨으며 사제에도 조예가 깊어 전사회를 갖기도 하셨다. 지난 1996년 8월에 세수 78세로 임직하시며 화길로 법사님이 남기신 "봉인사를 교화도량으로 키우라"는 유지를 받들어 전문수련장인 자광전(慈光殿)을 건립하게 되었다. 자광이란 뜻은 미래불인 자씨(慈氏)미륵에서 따온 자(慈)자와 부처님은 그대로 빛(光)이라는 의미를 뜻하며 수련하는 모든이들이 성불하여 미래불이 되라는 의미이다. 본 도량은 사찰 내 왼쪽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과 좌측으로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큰법당이 자리하고 있으며 부처님 맞은편에는 인자하신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으며 그곳에는 생명과 같은 늘 풍무한 샘물과 아담한 연못이 주위를 감싸고 있다. 또 봉인사의 특징인 100년이 넘는 원만하고 넉넉한 삼나무가 마당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 방문하는 불자들에게 편안함을 안겨주고 있으며 울창한 숲과 계곡 맑은공기 좋은 약수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이 성지에서 수련하는 모든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수련장이 될 것이다. 또한 한 주지인인 적경스님은 봉인사를 위피사나(여래선) 전문수련도량으로 불교를 배우고자하는 또는 선(禪)수련회를 하고자하는 이들을 위해 열려수련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본 사찰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의한 수련회 또는 각종단체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련회도 환영하며 부처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수련회라면 모두 수용하여 이웃들과 수행하면서 좋은 벗(도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스님의 원력이다. 봉인사 한길청진원에서는... 현주지인 적경스님은 봉인사를 교화도량으로 키우라는 유지를 받들어 위피사나(여래선) 전문수련도량인 자광전을 짓고 있으며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님들뿐만 아니라 불자들이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때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일주일 또는 열흘과 한달간 수행 할 수 있는 도량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스님의 원력입니다. 이웃들과 수행하면서 좋은 벗(도반)이 되고자 하는 스님의 원력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래선(如來禪-vipassana)후원자 모집안내 여래선 후원자의 의무와 혜택 ·가입비 1만원과 매달회비 1만원 납부 ·1년 회비(W12만원)가 완납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수련 할 수 있음. ·수련기간은 열흘이며 모든 비용(숙식 및 지도)은 그동안 납부한 회비로 충당 ·봉인사에서 발간한 모든 책자 및 TAPE, CD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음. ·수련일정은 3일간 자비관(사마타 수행), 7일간 관법(위피사나 수행) ·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종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소정의 양식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화 0346-574-5585 / 팩스 0346-574-0808 ·후원해주시 계좌번호 국민은행 227-25-0000-906 농축 204051-51-050551(예금주: 봉인사 한길정진원)